

# 舊韓末 全羅南道 島嶼地方 義兵에 대한 一考察

— 특히 莞島 · 海南 지역을 중심으로 —

洪 英 基

- |                               |                 |
|-------------------------------|-----------------|
| I. 머리말                        | IV. 島嶼地方 義兵에 대한 |
| II. 日帝의 經濟的 侵奪과<br>島嶼地方의 義兵蜂起 | 日本의 對應策         |
| III. 島嶼地方 義兵의 主導人物과 그 活動      | V. 맺 음 말        |

## I. 머리말

全羅南道는 舊韓末, 특히 1908-1909년 사이에 의병항쟁의 중심지였다. 그렇지만 전라남도 전 지역에서 의병 봉기가 동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咸平 羅州 長城 光州 등 주로 내륙지방에서 전개되다가,<sup>1)</sup> 그 후

1) 『全南暴徒史』(李一龍 譯, 全南日報印書館, 1977, 146-152쪽)에는 1908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歸順한 의병 116명에 대한 인적 사항, 즉 출신 지역·나이·직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출신 지역별로 통계를 내면 아래와 같다.

〈표〉 1908년 2월-8월에 귀순한 전남 의병의 지역별 분포

/군별	합평	나주	장성	광주	구례	영광	곡성	장흥	창평	기타
名(116)	27	25	18	11	8	7	6	6	3	5
%(100)	23.3	21.5	15.5	9.5	6.9	6.0	5.2	5.2	2.6	4.3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 귀순자 가운데 69.7%가 咸平 羅州 長城 光州 4개

점차 확산되어 1908년 말 1909년 초에는 전라남도 島嶼地方에서도 의병이 크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전라남도 모든 지역은 의병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라남도의 상황에 대하여 日本側은,

全羅南北道...他道에 비하여 敵勢猖獗하고 首魁各地에 割據하여 其勢力이 強大한 것은 數百名의 部下를 所有하고 항상 여러 곳을 橫行하여 심한 경우에는 白晝에 集團으로 行動<sup>2)</sup>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元來 本道는...(의병들이) 特히 南海에 島嶼가 많은 것을 이용하여 本道の 討伐이 頻繁해지자 海賊으로 변하여 海島를 劫掠하고 海島에 討伐隊를 파견하면 忽然 本道 內로 遁風함과 같은 狀態<sup>3)</sup>

라고 하여, 일본측은 全羅南道 內陸뿐만 아니라 島嶼地方이 의병의 일시적 근거지나 활동 무대로 이용되는 점을 우려하였다. 결국 그들은 의병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無政府의 狀態」<sup>4)</sup>가 되어버린 전라남도에 대규모의 군대를 일시에 투입, 무자비하게 蹂躪하였다. 이른바 「南韓暴徒大討伐作戰」

郡 출신이다. 귀순자의 발생 수치가 의병 활동의 중심 지역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는 생각된다. 더욱이 일본측 기록에서도 光州 長城 羅州 潭陽을 의병이 盛한 지역으로 주목한 바 있다(『暴徒에 관한 編冊』〈이하 『編冊』〉 1909년 2월 12일자 : 『韓國獨立運動史』 13, 1984, 483쪽).

한편 위의 귀순자들의 연령별, 직업별 통제는 아래와 같다.

〈표〉 歸順者の 연령별 · 직업별 분포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직업별	농업	상업	기타
명(116)	3	45	34	17	11	6	명(116)	105	10	1
%(100)	2.6	38.8	29.3	14.6	9.5	5.2	%(116)	90.5	8.6	0.9

이로써 볼 때, 20~30대 연령층의 의병 참여가 두드러진 현상임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었으나 상업도 적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2) 「158. 南韓暴徒大討伐實施報告」, 『韓國獨立運動史』(이하 『運動史』라 줄임) 1, 1965, 806쪽.
- 3) 『編冊』 1909년 2월 12일자 : 『運動史』 13, 1984, 483쪽.
- 4) 「158. 南韓暴徒大討伐實施報告」, 『運動史』 1, 1965, 817쪽.

(이하「大討伐作戰」)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전라남도 의병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바 있다.<sup>5)</sup>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전라남도 의병의 전반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거나, 내륙에서 활동한 의병부대와 그 의병장들을 검토하는 데에 치중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전라남도 의병의 다양한 모습이 모두 밝혀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島嶼地方의 義兵蜂起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전라남도는 수많은 島嶼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 도서지방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이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인용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全羅南道 島嶼地方의 義兵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莞島 海南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완도 해남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된 背景

5) 구한말 전라남도에서 起義하여 이 지방에서 활동한 의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 (1) 崔根茂, 「義兵大將 金東臣에 관한 研究」, 『全州教育大學 論文集』 18, 1982.
- (2) 姜吉遠, 「海山 全垂鏞의 抗日鬪爭」, 『歷史學報』 101, 1984; 『義兵戰爭研究』 上, 知識產業社, 1990.
- (3) 李相基, 「韓末의 民族運動—長城地方의 義兵活動을 中心으로—」, 『人文科學』 2, 木浦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 (4) 姜吉遠, 「後隱 金容球의 抗日鬪爭」, 『全北大學校 人文論叢』 16, 1986.
- (5) 金義煥, 「1909年의 抗日義兵部隊의 抗戰—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 발견에 즈음하여—」, 『民族文化論叢』 8, 1987.
- (6) 洪英基, 「安圭洪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舊韓末 湖南義兵의 一例—」, 『韓國學報』 49, 1987년 겨울호; 『義兵戰爭研究』 上, 知識產業社, 1990.
- (7) 姜吉遠, 「瀟山 安圭洪의 抗日鬪爭」,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8.
- (8) 洪英基, 「舊韓末 沈南一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 『七里 李光顯教授 退職記念 韓國史論文集』; 『東亞研究』 17, 1989.
- (9) ———, 「舊韓末 金東臣 義兵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56, 1989년 가을호.
- (10) 洪淳權, 「윤사조약이후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발전과 의병장들의 성격」, 위의 책 57, 1989년 겨울호.
- (11) ———, 「韓末 義兵運動의 鬪爭 양상—1906~1909년 湖南地域의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尹炳烈教授 華甲紀念 韓國近代史論叢』, 知識產業社, 1990.
- (12) 洪英基, 「舊韓末 雙山義所에 대한 몇 가지 問題」, 위의 책.

을 주로 <莞島森林問題>와 漁業法の 施行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서 의병 봉기를 주도한 인물들과 一般義兵의 특징, 그리고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측은 도서 지방 의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 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1910년 併呑 직후에도 民族解放運動이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에서 民族運動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를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叱正을 바란다.

## II. 日帝의 經濟的 侵奪과 島嶼地方의 義兵蜂起

島嶼地方 의병 봉기의 배경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건의 하나가 <莞島森林問題><sup>6)</sup>일 것이다. <莞島森林問題>는, 1908년 말 당시 內部大臣 宋秉峻이 완도의 국유 삼림을 현 시가의 10분의 1인 십만원에 일본인에게 팔아 넘기려는 데서 惹起되었다. 송병준은 그가 農商工部大臣으로 있던 1907년에 일본인에게 완도 삼림을 팔기로 미리 내정해 놓았다가, 1908년 말 당시 농상공부 대신 趙重應과 함께 그것을 일본인에게 賣渡하려 하였다. 당시 언론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함으로써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 보도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물론 완도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大韓每日申報 1908년 12월 22일자「韓國森林의 賊」이란 論說에서,

近年 韓國의 餘存 森林이 惟是 西道の 白馬山城과 南道の 莞島에 在 森林이더니 白馬山城의 森林은 年前에 壹進會가 擅自發賣... 莞島森林으로 言하면 年前 加藤增雄이 宮內府顧問으로 該森林을 調査 則 百萬圓價値로 論하던 것인디 現今 宋

6) <莞島森林問題>란 송병준 등이 완도의 국유 삼림을 일본인에게 헐값에 放賣하려는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京鄕新聞 등 당시 발행되던 주요 신문의 論說과 雜報 난에서 1908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美洲에서 간행되는 共立新報에서도 內報 난에 2회나 掲載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문들은 이 사건을 <莞島森林問題>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도 편의상 그대로 따른다.

秉峻이가 日人 江蘇과 何等 分利의 手段으로 拾萬圓에 決價賣渡키었다하니 吾儕는 韓國森林의 厄運을 吊키며 兼키야 莞島人民의 厄運을 吊키노라... 況 莞島는 本土人民의 生活이 專혀 森林에 係키리라 此地는 小嶋라 良田도 少키며 沃番도 少키며 其他 金銀銅鐵 等의 採出이 無키고 六七千戶 人民이 只是 森林에 依키야 柴炭 屋材 等은 姑舍 키고 穀粟도 此로 買入키며 絮布도 此로 買入키나니 萬堂 森林이 無키면 居民이 無키 지며 居民이 無키면 莞島가 無키지니 然則 莞島 壹郡은 森林으로 成立된 郡이어늘 莞島 森林을 外人에게 賣渡함은 卽 莞島 壹郡을 舉하야 外人에게 賣渡함이로다... 莞島의 餘望은 其人民이 死力을 出키야 此를 抗爭함에...

라고 하여, <완도 삼림문제>의 顛末 그리고 삼림에 全的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완도주민의 실정 및 삼림 처분에 대한 완도 주민의 반응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결국 완도의 삼림은 당시 總理大臣 李完用의 弄奸과 완도 주민의 반대 그리고 언론의 비판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일본인에게 讓渡되지 않았다.<sup>7)</sup>

그러나 이것으로 완도의 삼림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1909년 2월에는 莞島郡守 鄭肯朝가 삼림을 濫伐했다가 免職되었으며,<sup>8)</sup> 그 해 5월에는 삼림남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인 事務囑託이 완도에 파견되었다.<sup>9)</sup> 이와 비슷한 시기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완도 삼림은 거의 절반이나 불에 탔는데, 피해 면적이 약 4천 町步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십 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sup>10)</sup> 요컨대 완도의 삼림문제가 1908년 말에 제기된 이래 1909년 5월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도 주민들은 日帝의 집요한 경제적 침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反日感情이 高潮되어 갔을 것이다.

한편, 1908년 11월에는 漁業法이 시행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島嶼와 沿

7) 共立新報 1909년 2월 10일자 內報에서는 완도 삼림이 일본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된 내막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8) 皇城新聞 1909년 2월 18일자 雜報「伐林免官」.

9)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26일자 雜報「莞島森林保護」.

10) 京鄉新聞 1909년 6월 11일자 잡보「완도에큰화지」. 한편, 이때 발생한 화재를 우연한 사고나 失火로 판단하기에는 어떤지 자연스럽지가 않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오히려 삼림문제와 관련된 고의적인 放火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岸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업법이 시행됨으로써 일본인들의 漁業權 장악이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다.<sup>11)</sup> 예컨대 1909년 4월 현재 慶尙 全羅 연안에 일본인들이 청원한 어업권만 하더라도 약 1만 건이나 되었다는 것이다.<sup>12)</sup> 일본인에 의한 어업권 침탈의 실상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결국 한국인과 일본 어민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당시 전라남도 해안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11일자 雜報 「漁民決死」에,

七山海面에서 每年 한인이 石魚漁業으로 資生하더니 今年에 日人이 農商工部 認可를 圖得하고 該漁業을 掠奪하야 韓國 漁民이 飢死를 境遇에 至한 故로 該漁民 等이 決死隊를 組織하고 日人을 多數 殺害하였다더라

라고 있는데, 이 사건은 靈光 연안의 七山 앞바다<sup>13)</sup>에서 일어났다. 내용인 즉 일본인에게 어장을 빼앗겨 생계가 막연해진 한국인들이 決死隊를 조직하여 일본 어민들을 처단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바다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연안과 도서지방 주민들은 日帝의 어업권 침탈로 인하여 고조된 반일감정을 表出した 것이다.<sup>14)</sup>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도서지방 주민들은 의병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의병 활동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병 관련자들이 도서지방에 流配왔기 때문이다. 1907년 12월에 赦免된 88名中 74명이 內亂罪人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71명은 전라남도의 智島 莞島 珍島에 流配되어 있었다.<sup>15)</sup>

11)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22일자 논설 「漁業法 施行에 對하야」와 같은 신문(국문판) 1909년 11월 14일자 논설 「서도 海면에 어장」 참조.

12)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22일자 논설 「漁業法 施行에 對하야」 참조.

13) 七山 앞바다는 이미 1907년 정부터 조기의 3대어장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德永勳美, 『韓國總覽』 제1권 2호 <東京, 博文館, 1907>, 918쪽).

14) 洪淳權은, 어업법 발효이후 특히 심화된 일본인 어로 활동의 확대가 의병의 해상활동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주 5)의 (11) 논문, 306-307쪽).

15) 舊韓國 官報 제3939호(1907. 12. 3.) 叢報 司法 조 참조, 전라남도에 유배된 71명

내란죄인이라ں 다름아닌 의병을 말한다. 이들과 지도 완도 진도의 주민 사이에 접촉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特赦로 풀려난 이후에도 도서지방에는 의병관련 流配囚들이 끊임없이 내려왔다. 의병항쟁이 격화됨으로써 유배수들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黃俊聖의 경우, 그는 全北 鎭安 출신으로 의병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10년 流配刑에 처해져서 1908년 2월 완도에 定配되어 왔다.<sup>16)</sup> 그는 한문에 능통하여 定配地인 완도에서 부근의 아동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한다.<sup>17)</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의병관련 유배수들과 섬 주민들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접촉의 시기는 적어도 190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또한 전라남도 내륙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일본측의 진압을 피해 도서지방을 이용한 사실도 기록으로서 확인된다. 즉 『蘆月軒遺稿』<sup>18)</sup> 제4책, 「從弟在輔行錄」에

駐於樓鳳山中 方犒軍留宿 同月十六日(1908년 음력 4월 16일; 필자)曉 趙秉基率 彼兵圍注 亂放彈丸 出於不意 義兵多死... 在輔不勝悲憤 避入島中 自此士氣頓挫 軍律解弛... 七月 在輔聞老母病報 出自島中

이라고 있듯이, 1908년 봄에 起義한 安圭洪과 廉在輔 등은 일본측의 기습으로 패하자, 잠시 섬에 들어와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서지방이 내륙 의병들의 일시적 활동무대 내지는 隱身處로 활용되는 것을 섬 주민들은 목격하였을 것이다.

을 流配地別로 분류해 보면 智島郡 智島에 25명, 같은 군 古群山島에 12명, 莞島郡 莞島에 13명, 같은 군 古今島에 4명, 珍島에 17명이었다.

16) 위의 책 제4005호(1908.2.24.) 彙報 司法조와 대한매일신보(국문판) 1908년 2월 22일자 잡보 「황씨류빈」, 「統監府 來去案」 제12책(전12책) 「機密通發 제993호」, 「編冊」 1909년 7월 9일자와 12월 20일자: 「運動史」 15, 1986, 86-87쪽 그리고 같은 책 16, 1987, 358-360쪽 참조.

17) 「편책」 1909년 12월 20일자: 「운동사」 16, 359쪽.

18)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참고, 「安圭洪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 「韓國學報」 49: 「義兵戰爭研究」 上, 372쪽의 주 18) 참조.

그런데 내륙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島嶼로 이동, 활동함으로써 섬 주민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특히 완도를 비롯한 인근 도서 주민들은 해남에서 反日鬪爭을 전개하던 沈南一 의병부대로부터 고무된 바가 적지 않았다.<sup>19)</sup> 당시 이들 도서지역 주민들은 <완도삼림문제>와 어업법의 시행 등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말미암아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남일 의병부대의 의병활동은 莞島 珍島一帶에 정배된 의병 관련 유배수들에게 대단한 反響을 일으켰다. 곧 후술하겠지만 流配囚들이 정배지를 이탈하여 의병에 다시 참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이들이 1909년 초에 의병에 재차 투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sup>20)</sup>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완도삼림문제> 및 어업법의 시행과 거의 맞물려 있거나, 바로 그 직후에 해당된다. 바꾸어 말하면 도서 연안 주민들이 일제의 경제적 침탈로 인하여 자신들의 반일감정을 표출시키는 시기에 유배수들도 의병에 가담한 것이다. 이 점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의병활동 면에서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이들의 의병활동 방향은 대체로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는 측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본측은 『朝鮮暴徒討伐誌』(『독립운동사자료집』 3, 773쪽)에서,

우리 토벌대의 엄밀한 검거와 민첩한 소탕으로 인하여 폭도의 대부분은 남방 연해 및 도서로 도망쳐 동 지방 일대에 있는 우리 어민이 그 참해를 입게 되었다

라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륙에서 이동해온 의병들과 도서지방 주민 그리고 의병출신 유배수들이 연합하여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909년 所安島(완도의 남쪽 海上에 위치)에서 토지소유권 분쟁사건이 일어났다. 원래 소안도의 대부분의 農地는 宮房田으로서, 思悼世子の

19) 이 점은 다음 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0) 제3장의 <표1> 참조.

5세손인 李琦鎔이 그 收租權者였다고 한다.<sup>21)</sup> 그런데 궁방전의 所有權이 갑자기 이기용에게 移讓되자, 소안도 주민들은 1909년에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토지소유권 분쟁 역시 섬 주민들을 의병 봉기에 가담케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전라남도 완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처음에는 의병 관련 유배수들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거나, 내륙에서 섬으로 이동해 온 의병들의 일시적 활동을 목격하는데 그쳤었다. 그런데 1908년 말부터 <莞島森林問題>와 漁業法의 施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일제의 경제적 침탈의 대상이 됨으로써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反日感情이 高潮되었고, 나아가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일본어민들과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건들이 도서지방에서의 의병 봉기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무렵 내륙에서 도서지방으로 이동한 沈南一 의병부대의 의병활동이 섬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의병에 가담시키는 動因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의병투쟁은, 완도 진도 등에 유배되어 있던 義兵出身 流配囚들이 의병에 재차 가담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소안도의 토지분쟁 사건도 一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잠잠했던 島嶼地方에 1908년 말부터 의병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남은 바로 앞에서 논의해 온 사건들이 의병봉기에 直, 間接으로 관련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朝鮮日報 1927년 5월 17일자 「絶島 唯一의 教育機關」과 앞의 신문 5월 18일자 「所安이 安在?」 그리고 李均永, 「해방의 땅 소안도(所安島)」, 『사회와 사상』 1989년 9월호; 『所安抗日運動史料集』, 1990, 125쪽.

22) 위와 같음. 한편 소안도 주민들의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은 13년이 지난 1921년에 해결되었는데, 그 결과 소안도 주민들은 소유권을 되찾았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1만4백여 원을 모금하여 1913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中和學院을 小學校로 승격, 인가받는 데에 사용했다고 한다(이균영, 앞의 논문, 125쪽).

### Ⅲ. 島嶼地方 義兵의 主導人物과 그 活動

1908-1909년 당시 전라남도의 내륙지방에서는 沈南—安圭洪 全海山 등이 주도하는 의병부대가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sup>23)</sup> 심남일은 전라남도의 중남부 지역, 안규홍은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sup>24)</sup> 전해산은 대체로 중서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sup>25)</sup> 이 가운데 심남일 의병부대는 1908년 후반에 활동 영역을 해남까지 넓혔다.<sup>26)</sup> 이 점은 당시 신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대한매일신보(국문판) 1908년 11월 5일자 잡보 「의병 평장」 난에

전라남도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른즉 〇남동도에 의병이 창렬한디 그 의병의 당파는 남일파라 〇고 세력이 평장하더라

라고 하여, 남일파, 즉 심남일 의병부대가 해남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신문 1909년 3월 23일자 잡보 「남일파의 괴세」 난에도

령암과 〇남 동군에는 의병 남일파의 괴세가 점점 성하야 일인을 보는데로 죽이는 고로 그 지방에는 일본 상인과 거류민이 모다 도망하더라

라고 있듯이, 1909년 3월까지 이들은 在留日本人을 축출하는 의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3) 『全南暴徒史』, 8-9쪽.

24) 沈南—과 安圭洪의 의병부대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로는 아래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 拙稿, 「舊韓末 沈南—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 『七里 李光勳教授 退職記念 韓國史論文集』; 『東亞研究』 17, 1989.

○ 拙稿, 「安圭洪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舊韓末 湖南義兵의 一例—」, 『한국학보』 49, 1987; 『의병전쟁연구』 상, 1990.

○ 姜吉遠, 「瀟山 安圭洪의 抗日鬪爭」,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8.

25) 全海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길원, 「海山 全垂鏞의 抗日鬪爭」, 『역사학보』 101, 1984; 『의병전쟁연구』 상, 1990.

26) 「海南城內接戰」, 『沈南—實記』(『독립운동사자료집』〈이하 「자료집」〉 2, 1970, 921쪽).

이때 해남에서의 반일투쟁을 주도한 인물은 李德三인 듯하다. 그가 1909년 중반까지 해남 완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아 그러하다.<sup>27)</sup> 그런데 이덕삼은 심남일의 起軍將으로서 출신 지역은 靈巖, 本名은 金德仲으로 알려져 있다.<sup>28)</sup>

한편,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의병들은 일본측의 진압을 피해 남쪽 연안과 도서지방으로 이동했었다. 심남일 의병부대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함평 나주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영암을 거쳐 해남에 까지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때로는 일본측의 진압때문에 도서지방을 이용한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인지 심남일 의병부대의 활동 영역에 진도 연안이 포함되어 있다.<sup>29)</sup> 안규홍 의병부대의 경우에도 활동지역에 완도 연안이 포함되어 있다.<sup>30)</sup> 이로써 볼 때 1908년말 1909년 초를 전후하여 전라남도의 의병들은 도서 연안 지방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듯하다. 그래서 일본측은 당시 전라남도 연해안 지방을 「義兵의 巢穴」<sup>31)</sup>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1909년 초에 島嶼地方이 전라남도 의병의 주된 활동무대로 바뀌자, 이 지역에 정배된 流配囚들이 定配地를 이탈하여 의병에 다시 투신하였다. 정배지를 이탈하여 의병에 참여한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정배지는 완도 진도 등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20대로서 청장년층에 해당되며, 모두 다른 지방 출신들이다. 또한 이들은 유배되기 전인 1907년에 자신들의 출신지 내지는 연고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被逮 또는 自首한 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10년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은 유배수들이었다. 이들이 의병에 다시 가담한 시기

27) 「(1909) 3月中 暴徒勢力 比較表」, 「4月中 暴徒勢力 比較表」, 「7月 暴徒勢力 比較表」(『編冊』); 『운동사』 13, 727쪽, 같은 책 14, 441쪽, 같은 책 15, 141쪽 참조.

28) 『沈南一實記』(『자료집』 2, 919쪽) 및 『편책』 1910년 2월 1일자; 『운동사』 17, 1988, 333쪽.

29) 『편책』 1909년 3월 11일자; 『운동사』 13, 1984, 830쪽.

30) 위와 같음.

31)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16일자 잡보 「營農者保護」.

〈표1〉 定配地를 離脫하여 義兵에 참여한 流配囚

성명	나이	출신지	직업	유배전 의병활동 지역(가담 연도)	정배 기간	유배지	재가담 시기	재가담한 의병부대에서의 직책	활동 지역
黃倭聖(成)	27	전북 진안	유생	전북태인(1907)	10년	완도	1909.5.	李德三 부대의 副將→독립	완도 해남 일대
秋瑛燦(燦)		전북 익산	전 해산군인	전북 익산 (1907)	10년	완도	1909.5.	이덕삼 부대의 前軍將	완도 해남 일대
黃成一					10년	완도	1909.6.	(이덕삼 휘하에서 활동)	완도 해남 일대
吳長柳	40	경기도 광주	농업	충북 진천(1907)	15년	완도	1909.6.		
鄭哲和	27	서울		경기,충북(1907)	15년	완도	1909.?	의병장	진도 일대
李弼相	23				10년	진도	1090.1.	의병장	해남 진도 일대

는 도서지방에서의 의병활동이 고조된 1909년 봄이었다.<sup>32)</sup> 특히 이들은 沈南一이 주도하는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주로 완도 해남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義兵 前歷을 인정받아 대부분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바로 이들이 도서지방 의병을 주도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표2>를 통하여 완도 해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32) 물론 이들보다 앞서 유배지를 탈출하여 의병에 가담한 의병 출신 유배수들도 있었다. 예컨대 鄭元集(31세, 前 解散軍人)과 李鳳來(28세, 前 主事)가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1907년 음력 9월 경기도 廣州에서 의병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10년 유배형을 선고받아 全羅南道 智島郡 智島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후 1908년 8월 경 유배지를 탈출하여 당시 함평 나주 영광 등지에서 활동중인 全海山 의병부대에 투신하였다. 이들 역시 전해산 의병부대에서 주요 직책을 띠고 활동하였다. 즉 정원집은 先鋒將, 이봉래는 從事로 활동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舊韓團 官報 제3964호(1908.1.7.) 彙報 司法, 『자료집』 별첨 1 「판결서 형 제58호」(13-14쪽), 『全海山陣中日記』(『자료집』 2,430쪽), 『湖南義兵將列傳』의 「全垂鑄傳」(위의 책, 661쪽)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유배지를 배경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당시 까지 도서 연안 지방에서의 의병활동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2> 莞島海南을 중심으로 활동한 義兵部隊의 주요 구성원

성명	나이	직업	직책	출신지역	활동기간	「대토벌작전」 이후 동향	비고
李德三			大將	영암	1908.?.-1909.?.	잡적	沈南一의 起軍將
黃俊聖	27	유생	副將→大將	전북 전안	1909.5.-1909.12.	械藏(1909.12.7.)	
黃斗(杜)-	35	농업	中軍將	해남	1909.2.-1909.8.	自首(1909.8.29.)	絞首刑
秋琪燁			前軍將	전북 익산	1909.5.-1909.7.	피살(1909.7.)	
姜成宅(澤)			部將		1909	잡적	유배수(?)
李弼相	23		(의병장)		?-1909.1.	피살(1909.1.7.)	
權東信	26	농업	황준성의 부하	완도	1909.5.-1909.10.	자수(1909.10.)	
文基綠			참모		?-1909.7.	피체	
鄭允仲			강성택(?)의 부하	완도	?-1909.6.	-	
金聖澤	33	주막업	황준성의 부하	돌산	1909	-	징역 3년
李炳鉉	31	수부	-	-	1909	-	징역 2년
宋炳雲	33		황두일의 副將	해남	-	자수	
梁士珍	29		- 부하	-	1909.2.-1909.7.	피체	
李春景			- 3營什長	장흥	-?		
林汝安			- 都砲	-	-?		
林明三			- 砲士	-	-?		
朴化仙	38	농업	- 부하	해남	1909	피체	징역 3년
姜自仙	45	-	-	-	-	-	-
李鳳奇	24	-	-	강진	-	-	-
朴春彦	33		-	해남	?-1909.8.	자수	

성명	나이	직업	직책	출신지역	활동기간	「대토벌작전」 이후 동향	비고
金公西	30		황두일의 부하	해남	?~1909.8	자수	
崔京化	28		.	.	.	.	
朴京凡	29		.	.	.	.	
李得春	19		황두일의 侍從卒	.	.	.	
金順彦	27		황두일의 從事軍	.	.	.	

〈표2〉에서 살펴지듯이, 유배수를 제외한 의병들은 거의 도서 연안 출신들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이들이 의병에 참여한 시기인데, 대부분 1909년 초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완도삼림문제〉 및 어업법의 시행과 거의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해서 도서 연안 주민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당하자, 의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완도 해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병들은 沈南一의 起軍將인 李德三을 頂點으로 한 체계를 유지하였다. 즉, 도서지방 의병들은 심남일의 병부대로부터 영향받은 바가 적지 않았다. 그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이 지역 의병부대를 주도한 초기의 중심인물이 이덕삼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한 것 같지 않다. 오히려 黃俊聖 黃斗一 秋琪燁 姜成宅 등에 의해 각각 거의 독립적으로 활동한 듯하다.<sup>33)</sup> 그리하여 1909년 봄이 지나면서 유배수들과 토착 주민들이 의병부대를 이

33) 『편찬』에 의하면 이덕삼은 1909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사, 오십명 내지 이, 삼백 명 규모의 부하를 통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황두일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09년 4월 경 해남에서 이동하였다고 한다. (『운동사』 1, 789쪽). 그 후 前軍將 추기영과 中軍將 황두일 등이 이덕삼의 뒤를 이어 독립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위와 같음). 그렇지만 황준성 강성때 추기영 황두일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하였다(『자료집』 별집 1, 920-925쪽). 한편, 일본측은 「대토벌작전」 직전에 완도 해남 등지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의병장들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끝어 갔다. 유배수 황준성<sup>34)</sup>을 중심으로 해남 출신 황두일<sup>35)</sup> 및 유배수 추기엽<sup>36)</sup> 강성택<sup>37)</sup> 등이 그들이다. 한편, 일반의병들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다가 일제의 경제적 침탈로 말미암아 반일투쟁에 나선 도서연안 주민들이었다. 결국 도서 지방에서는 의병 출신 유배수들의 지도력과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이 합쳐져서 의병봉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을 아래의 인용문이 잘 알려준다. 『編冊』 1909년 1월 6일자(『運動史』 13, 78쪽)에

曩日 全羅南道 觀察使는 同島(완도; 필자)를 巡視하고 島民에 對하여 森林盜伐에 關한 嚴戒를 與한 일이 있으나 依民盜伐을 續行하고 또 曰 蕪島의 森林은 日本人의 手に 歸하므로써 島民은 드디어 餓死하는 外에 不如하다. 日本人과 싸워 戰死하더라도 좋다고 憤慨... 또 古今島에 있어서의 流刑囚 26名은 恒常 暴徒와 氣脈을 通하고 時時로 內報를 하는 等 間接으로 援助를 與하고 있는 것 같다

성명	활동지역	규모	성명	활동지역	규모
이덕삼	해남	종래2-300, 今無	추기엽	우수영 부근	100
황두일	해남반도일원	120	강성택		20
황준성	우수영	150	강운성		13
김성삼		20	/	/	/

- 34) 황준성은 1907년 음력 4월에 전북 태인에 사는 崔益鉉의 門人 李起洙 등과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1908년 2월에 완도에 유배되었다(舊韓國 官報 제4000호 <1908.2.18.> 彙報 司法 및 같은 책 제4005호 <1908.2.24.> 彙報 司法 참조).
- 35) 황두일은 海南郡 北峯面(現 北平面) 古達洞 출신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 같다(『운동사』 1, 1965, 788-789쪽). 그래서인지 그의 부하들은 대부분 해남군 출신들이다(<표2> 참조).
- 36) 추기엽은 全州鐵衛隊 軍人이었는데, 군대해산이후 익산 출신의 의병장 尹賢甫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완도에 유배되었다(구한국 관보 제4041호 <1908.4.7.> 휘보 사법 및 같은 책 제4081호 <1908.5.23.>). 그후 그는 1909년 2월 의병에 다시 참여하여 완도 해남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09년 7월 9일 大興寺 전투의 책임을 물어 부하들에게 피살되었다(『편책』 1909년 7월 31일자; 『운동사』 15, 1986, 135쪽).
- 37) 강성택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혹시 완도에 유배중 다시 의병에 가담한 美西山과 동일인이 아닐까 한다(『편책』 1909년 6월 15일자; 『운동사』 14, 623쪽).

라고 있듯이, 유배수와 섬 주민 그리고 의병들은 <완도삼림문제>를 계기로 긴밀하게 협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들은 함께 反日戰線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서 연안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다음의 <표3>이 참고된다.

<표3> 莞島 海南 지역의 義兵活動(1908.7. - 1909.7)<sup>38)</sup>

구분	군대와경찰 및그기구	재무서또는 공전영수원	우편취급소 체송인	在留日本人				한국인				계	
				상인	어민	수산조사자	미상	민장	일진회원	교사	기타		
완도	5		1(2)	2(1)	(3)	1					1	1(2)	11
해남	6(2)	3	1			(1)	2	2	1			2(2)	17

\* 비고 : ( )안의 숫자는 『편책』 1909년 4월-6월 분을 조사한 것으로 위의 사실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임.

위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완도 해남 지역 의병들은 일본 軍警과 在留日本人들을 주로 공격하였다. 다시 말해서 반일투쟁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의병에 가담한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진다.

이 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인용문이 주목된다. 『編冊』 1909년 5월 22일자(『운동사』 14,414쪽)에

우리의 團體는 3艘의 船으로 行動하는 者인데 1艘의 乘組人員은 15,6인 또는 20여 명을 乘組, 興陽 突山 海南 莞島郡 諸島의 海岸을 密航하고 日本人을 東海面으로 放逐하지 않으면 안될 次第로 決코 同胞人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도서지방 의병의 가장 큰 목적이 일본인의 放逐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sup>39)</sup>

38) <표3>은 『전남폭도사』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완도 해남 지역에서 전개된 모든 의병활동을 드러내 주지는 못한다. 다만 이 지역 의병활동의 경향을 보여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3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도 유의해 볼 만하다. 1909년 4월 全南義兵所의 이름

실제로 도서지방 의병들의 일본세력 逐出活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29일자 잡보「日漁民被殺」에

全南木浦地方에는 義兵이 熾盛... 水産組合所의 調査를 據한즉 昨年 九月 拾壹日로부터 本年 三月 壹日까지 被殺한 日人이 二拾六名이오 家屋 被燒한 것이 三十六戶라더라

라고 있음을 보아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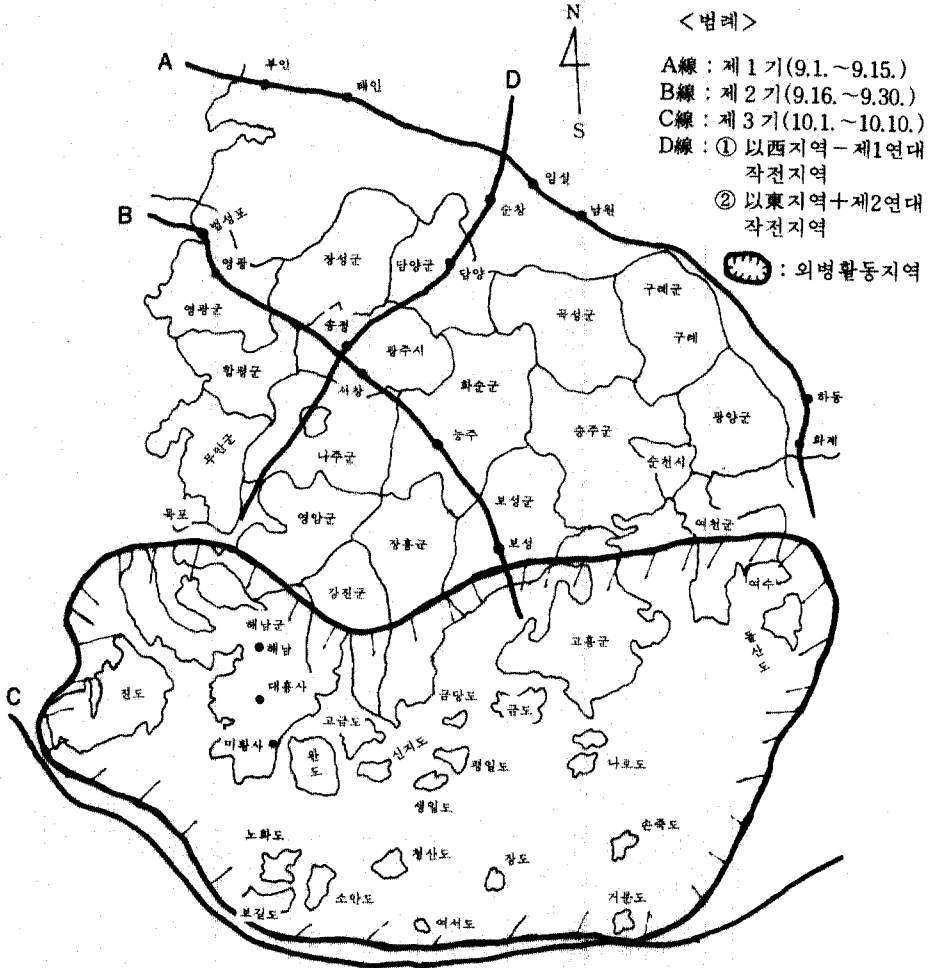
한편 반일투쟁 외에도 이들은 徵稅를 방해하거나, 親日官吏의 처단 및 一進會員의 제거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들이 일본세력을 끌어들이어 의병활동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서지방의 의병활동은 1908년 말부터 본격화되어 다음해 여름에 크게 고조되었다.<sup>40)</sup> 당시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는 莞島 海南을 비롯하여 珍島 蘆花島 所安島 巨文島 靑山島 餘瑞島 巽竹島 長島 生日島 助藥島 古今島 突山島 등 남부 연안의 島嶼地方이라 할 수 있다(지도 참조).<sup>41)</sup> 이제 장을 달리하여 도서지방 의병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책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으로 木浦와 그 부근 各面에 檄文이 發送되었다. 내용인즉 의병 1만 명이 목포를 공격하여 일본인을 죽이겠으니, 한국인은 피신하라는 것이었다(『편책』 1909년 4월 25일자; 『운동사』 14,1985,157쪽과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1일자 잡보「義將布檄」). 이 계획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것 역시 당시 의병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40)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3일자 잡보「海岸警備」참조.

41) 이들의 활동지역에 대해서는 『자료집』 별집 1,1974,795쪽과 920-922쪽 그리고 『편책』 1909년 5월 22일자; 『운동사』 14,413-414쪽 및 같은 책 1909년 9월 21일자; 같은 책 15,521쪽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지도> 도서지방 의병의 활동지역과 <대토벌작전>의 시기 및 작전 지역도



## IV. 島嶼地方 義兵에 대한 日本의 對應策

도서지방, 특히 완도의 경우에는 1908년 말 의병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편책』 1909년 1월 6일자(『운동사』 13, 78쪽)에

從來 暴徒의 形跡을 보지 못하였던 莞島는… 客年 12월 11일 暴徒 14명이 同島郡內 面에 襲來… 賊勢 점차 증가하여 드디어는 都街에 至하여 在留民을 襲擊하려고 揚言 在留民 居住地內의 偵察을 하는 등 시시각각 위험이 臨迫하여 在留民 舉皆가 避難을 企圖하기에 至하여 駐在 巡查 等도 此를 保護하여 客月 24일 木浦로 退却하였다

라고 있듯이, 1908년 말 완도에 의병이 크게 일어나자, 모든 재류 일본인뿐 만 아니라 주재순사조차도 목포로 퇴각하였다. 이에 앞서 가을에 의병이 들어왔을 때에는 수비대의 병력을 증가시킨 적도 있었다.<sup>42)</sup>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도서지방의 의병세력이 약했던 초기에는 수비대 병력의 증가조치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지만, 의병의 세력이 강화되자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측은 완도 방면에 한달 예정의 수비대를 출동시켰다.<sup>43)</sup> 이어서 1909년 2월 하순에는 해남에 토벌대를 파견하여 의병 진압에 나섰다.<sup>44)</sup> 다른 한편으로 일본측은 완도군 각 島嶼에서 활동하는 의병을 정찰하기 위하여 정찰대를 2회나 파견하였다.<sup>45)</sup> 또한 2월 중순에는 연안지방의 일본인 이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康津 城田에 臨時憲兵 派出所를 설치하였다.<sup>46)</sup>

일본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 의병들의 활동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지방에 駐在하는 憲兵隊를 差出, 파견하

42)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2일자 잡보「日人被殺」 참조.

43) 『전남폭도사』, 86-87쪽.

44) 위의 책, 93쪽.

45) 『편책』 1909년 1월 26일자와 2월 11일자; 『운동사』 13, 1984, 139쪽과 363쪽.

46)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16일자 잡보「營農者保護」.

였다. 예컨대 1909년 5월과 6월에는 京畿 忠南北 平壤 駐在 憲兵補助員들이 전남지방에 파견되었고 아울러 憲兵派出所도 增設되었다.<sup>47)</sup> 심지어 巨文島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스스로 自衛團을 조직하여 自救策을 세우기도 하였다.<sup>48)</sup>

지금까지 언급한 일본의 대응책은 전남지역 의병은 커녕 도서지방에서 활동하는 의병을 진정시키기에도 미흡한 것이었다.<sup>49)</sup> 일본측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의병진압을 위한 地圖를 특별히 작성·배포하고, 전남지역 의병을 偵探하기 위해 서울에서 憲兵隊 參領이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하였다.<sup>50)</sup> 뿐만 아니라 南部守備管區의 전 병력을 보다 강력한 부대와 교체하였다.<sup>51)</sup> 아울러 長興-海南간 警備電話를 加設하였다.<sup>52)</sup>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일본측이 전남의병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자, 일본측은 전라남도 의병을 소멸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세운 것 같다. 하나는 裸負商을 이용하여 진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보부상을 이용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7일자 잡보 「別出奇計」란에

裸負商의 勢力을 利用하여 義兵을 勦滅할 議論은 伊藤氏在任時부터 有하였으나 彼等を 制禦하기는 政府에서도 困難하던 바이라 萬一 彼等이 義兵을 鎮靜한 後에 大勢力을 得을진대 容易處置치 못할줄을 確知하고 還間置之였더니 近日에 此議가 再起한

47) 皇城新聞 1909년 5월 6일자 잡보 「補助員發行」과 6월 26일자 잡보 「憲兵派出所增設」 그리고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22일자 잡보 「兵員移送」과 5월 30일자 잡보 「憲補派送」.

48) 皇城新聞 1909년 4월 16일자 잡보 「巨門自衛」. 한편 이무렵 일본측은 거문도 부근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釜山守備隊의 일부 병력을 파견시킨 적도 있었다(『편찬』 1909년 4월 14일자; 『운동사』 14, 223쪽).

49) 『158. 南韓暴徒大討伐實施報告』, 『운동사』 1, 808쪽.

50)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6일자 잡보 「勦義地圖」와 5월 21일자 잡보 「朴氏歸國」

51) 『편찬』 1909년 5월 26일자; 『운동사』 14, 498-499쪽.

52) 『편찬』 1909년 5월 3일자; 『운동사』 14, 474쪽.

다 其後弊에 就<sup>53</sup>야는 義兵鎮壓後에 如前히 中央에서 統率<sup>53</sup>한 事務所를 設<sup>53</sup>면 弊害가 無<sup>53</sup>리라<sup>53</sup>야 리允용씨가 採負商과 專力交涉<sup>53</sup>야 大略 成立되얏슴으로 去二三四일에 閣議를 經<sup>53</sup>고 經費 二十萬圓을 支出<sup>53</sup>야 彼等을 利用<sup>53</sup>하기로 內定<sup>53</sup>야닷다더라

라고 있듯이, 그 상세한 顯末을 알 수 있다. 일본측이 보부상 이용 계획에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추진하려 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측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以夷制夷」 방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사 직전에 호남지방 보부상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대한매일신보(국문판) 1909년 8월 22일자 「호남의 부상 동포를 하례함」이란 논설에서

천연히 눈물을 흘리고 분주히 서로 고<sup>53</sup>며의연한 마음으로 서로 모혀뭉세<sup>53</sup> 더 회암재와 뽕박이 얼마쯤 감을지라도 우리 부상들은 죽을지언정 복종치 말자<sup>53</sup>였스니... 만일 호남의 부상들이 더 마귀유인<sup>53</sup>한디 미혹<sup>53</sup>여 넘어가면 호남의 명예가 망<sup>53</sup>며 부상의 립력을 더러일<sup>53</sup>더니 또 국가에는 화열이 될거시어늘... 첫째는 호남을 위<sup>53</sup>여 하례할 일이며 둘째는 부상들을 위<sup>53</sup>여 하례를 일으오 셋째는 국가를 위<sup>53</sup>여 하례를 일으로다

라고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러하다. 결국 일본측은 보부상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이 작전을 이른바 「南韓暴徒大討伐作戰」이라 한다.<sup>53)</sup> 「대토벌작전」은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40일 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지도 참조). 그러나 전라남도 의병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10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全南暴徒史』(18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작전을 설명하였다.

臨時派遣隊 司令官 渡邊少將이 군사령부의 계획에 따라 파견대의 전 병력을 투입하

53) 지금까지 「大討伐作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단지 개략적인 설명이나 단편적인 언급만으로 만족해왔다. 따라서 그 자세한 내막은 잘 알 수 없다. 그것에 대하여 필자는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여 전남북도 토벌을 실시했다. 육지에서는 2개 연대의 용맹한 병력을 배치하여 전북 경계로부터 풀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수색하고, 바다에서는 물에서 도주하는 잔당과 珍島 莞島 부근에 배회하는 해적을 섬멸하려는 계획이다.

즉, 이 작전은 전남 의병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도서지방의 경우에는 내륙에서 이동하는 의병과 완도와 진도에서 활동하는 의병을 섬멸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도서지방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연안의 경비는 해군에서 한국 서해안 경비를 위하여 특별히 과견된 제11정대 및 전라남북 양도 지방 경무관에게 배속시킨 석유 발동기 기정 10척 및 수비대에 배속시킨 소증기선 및 梅丸로 하였다.<sup>54)</sup>

라고 하였듯이, 도서 지역 의병을 진압하고, 내륙 의병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많은 배를 동원하였다. 아울러 육군에서는 제1연대 제3, 4중대를 투입하였다.<sup>55)</sup>

한편 1909년 8월부터 추진되어 오던 警備船 配置 計劃이 진행됨으로써 도서지방 의병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경비선은 의병진압과 密漁船을 단속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었다. 즉, 대포를 탑재한 중무장 경비선 16척을 건조하여 그 중 10척은 의병을 진압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집중 배치하고, 나머지 6척은 密漁取締를 위해 황해도와 평북 연안에 배치하려는 것이었다.<sup>56)</sup>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는 石油貯置場 2곳과 警備事務所가 설치되었다.<sup>57)</sup>

그런데 「대토벌작전」과 아울러 진행된 경비선 배치 소식은 도서지방의 병들을 더욱 동요시켰다. 皇城新聞 1909년 9월 12일자 잡보 「海賊逃避」란

에

54) 『朝鮮暴徒討伐誌』(『자료집』 3, 1971, 804쪽).

55) 위와 같음.

56) 皇城新聞 1909년 8월 7일자 잡보 「水上警備船」과 8월 26일자 잡보 「警備艦配置豫料」 및 『운동사』 1, 1965, 870-873쪽.

57) 皇城新聞 1909년 8월 7일자 잡보 「警備船事務所」.

密漁船을 取締키고 海賊을 警戒키 爲키야 日本 大阪 某 造船所에 委託製造한 警備船은… 南海 各 島嶼로 根據를 作키고 掠奪도 多事키든 海賊等은 此事를 聞知키고 非常히 恐怖키야 日本이 不遠間 數十隻의 大艦巨舶을 派遣키야 海陸을 連絡來攻키다 고 互相口傳키면서 相引相携키야 陸地로 逃避

라고 있듯이, 경비선 배치 소식에 놀란 도서지역 의병들의 상당수가 내륙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완도 해남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의병장들인 黃俊聖 黃斗一 秋琪燁 姜成宅 등은 海南郡 北終面(現 해남군 北平面; 완도 對岸에 위치)에 모여 黃준성을 首將으로 추대하는 등 戰列을 정비하였다.<sup>58)</sup> 그리고는 바로 美黃寺(해남 松旨 達摩山에 위치)를 거쳐 大菴寺(현 大興寺, 해남 三山 頭 輪山에 위치)로 이동하였다. 이들도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둔사에서 갑자기 기습을 받아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사태는 黃준성과 추기엽 간에 진로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sup>59)</sup>

그 결과 黃준성은 「대토벌작전」을 피해 寶城 順天 등지로 이동하였으며, <sup>60)</sup> 추기엽은 대둔사 패전의 책임을 물어 부하들에게 피살되었다.<sup>61)</sup> 그리고 주요 인물 가운데 유일한 해남출신이었던 黃두일은 「대토벌작전」 실시 직전에 부하 일부와 같이 자수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대거 자수한 듯하다.<sup>62)</sup> 해남지역에서는 黃두일 이하 백 수십 명이 자수함으로써, 그 공로로 일본군 제2연대 제60중대는 「대토벌작전」 후 포상받은 3개 중대가

58) 「명치 43년 한형 제5호」와 「명치 43년 형공 제26호」(『자료집』 별집 1,920-922쪽).

59) 위의 책, 920-924와 『편책』 1909년 7월 9일자; 『운동사』 15,1986,86-87쪽 그리고 『조선폭도토벌지』(『자료집』 3,1971,803쪽) 참조. 그런데 도서지방 의병들의 진로를 놓고 黃준성은 해산율, 추기엽은 계속 투쟁을 주장한 듯하다(『자료집』 별집 1,923-924쪽). 한편 이들은 당시 일본군의 기습으로 전사 24명, 피체 10명이라는 인명 손실을 입었다.

60) 『편책』 1909년 9월 10일자와 9월 28일자; 『운동사』 15,1986,493-494쪽과 545쪽.

61) 위의 책, 1909년 7월 31일자; 『운동사』 15,135쪽과 『전남폭도사』, 127쪽.

62) 『편책』 1909년 8월 31일자와 9월 10일자; 『운동사』 15,334-335쪽과 493-494쪽. 및 『운동사』 1,788-789쪽 그리고 金義煥, 앞의 논문, 238쪽 참조.

운데 하나가 되었다.<sup>63)</sup> 그리고 내륙으로 이동했던 황준성 등은 「대토벌작전」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완도에 다시 들어와 잠복중 1909년 12월에 자수하였다.<sup>64)</sup> 다만 주도인물 가운데 강성택만이 유일하게 체포를 면하였던 것 같다.

요컨대 일본측의 대규모 군사작전과 경비선의 배치로 말미암아 완도 해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서지방 의병들은 내륙으로 이동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진로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진로 문제로 지도부가 분열된 濶中에서 일본측의 불의의 기습을 받아 상당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결국 주도인물을 포함한 도서지방 의병의 대다수는 「대토벌작전」의 종료와 함께 피살 혹은 자수, 피체되는 운명에 처하였던 것이다.

일본측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끝낸 직후에 島嶼地方을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하였다. 첫번째 조치로는 총 16척의 경비선가운데 10척을 목포와 여수에 각각 배치, 운영하였다. 이 경비선들은 아직도 도서지방에서 잠복 활동중인 의병들을 색출하고, 내륙과 도서지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병의 이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sup>65)</sup>

이러한 과정에서 30명이 피체되었는데, 그중 의병 관련자가 24명이나 되었다.<sup>66)</sup> 그리하여 도서지역의 불안이 해소되자, 일본어민의 수가 수 배나 증가하고 안전한 선박운행 그리고 徵稅上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sup>67)</sup> 간단히 말해서 일제의 경비선 운영은 도서지방의 의병을 종식시켜 그들의 경제적 침탈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그것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63) 「158. 南韓暴徒大討伐實施計劃」, 『운동사』 1, 827쪽.

64) 「편책」 1909년 12월 20일자; 『운동사』 16, 1987, 358-360쪽과 「자료집」 별집 1, 1974, 920-922쪽 참조. 그런데 황준성의 자수 날짜에 대하여 「편책」에는 10월 29일로, 별집 1의 재판기록에서는 12월 7일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재판기록을 따른다.

65) 「165. 內部警務局保安事務報告」, 『운동사』 1, 870-872쪽.

66) 「165. 內部警務局保安事務報告」, 『운동사』 1, 872쪽. 「대토벌작전」이 끝난 1909년 1월과 12월에도 의병과 경비선 간에 여러 차례의 교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21일자 잡보 「全南義兵」과 12월 4일자 잡보 「警備船消息」).

67) 위의 책, 872-873쪽.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두번째 조치로서 海南-康津-長興-寶城-筏橋-順天-光陽-河東을 잇는 총 연장 350리의 道路改修工事를 시작하였다(지도 참조). 모두 21만 원이 소요될 이 공사는 1909년 11월에 시작하여 1910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sup>68)</sup> 그런데 이 공사에는 「대토벌작전」중에 被逮되거나 自首한 의병가운데 일부 起訴猶豫者와 訓戒放免者들을 투입하였다. 일본측은 선발대상자 약 1400명중 선발가능자를 600명 정도로 추산하였다.<sup>69)</sup> 여기에 선발된 자들은 대부분 생활난이나 노동하는 것을 싫어해서 또는 강제로 의병에 가담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그러한 이유로 다시 의병에 가담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도로공사에 거의 강제적으로 투입시켰던 것이다.<sup>70)</sup>

요컨대 해남-하동간 도로공사는 의병의 재발을 막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 도로의 지리적 위치로 미루어 볼 때, 내륙과 도서지방을 왕래하는 의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병 봉기시에 진압에 편리하고, 일제의 경제적 침투뿐만 아니라 식민정착 수행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는 2차적 목적도 고려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당한 사업으로 일본측은 도로공사를 지목하였다.<sup>71)</sup> 다만 여러 도로가운데 해남-하동간 도로를 가장 먼저 改修, 擴張한 것은 그만큼 이 도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도로공사는 경비선 배치와 짝하여 도서 연안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였다. 그것은 전라남도 의병활동 상에 있어서 도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68) 『편찬』 1909년 11월 25일자; 『운동사』 16,165-166쪽과 皇城新聞 1909년 11월 1일자 참조 「歸順者救活法」 참조.

69) 위의 책 1909년 10월 30일자와 1910년 2월 19일자; 『운동사』 16,698-708쪽과 같은 책 17,1988,253-256쪽 참조.

70) 위의 책 1909년 10월 31일자; 『운동사』 16,702-703. 실제로 일본측은 이들 가운데 500명 이상을 도로공사에 투입시켰다(위의 책 1910년 2월 19일자; 『운동사』 17,253-254쪽).

71) 위의 책 1909년 1월 28일자; 『운동사』 13, 1984, 140-143쪽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도서지방 의병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은 의병활동의 정도에 따라 변화되었다. 도서지방의 활발한 의병활동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대토벌작전」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초래케 하는 近因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도서지방 의병을 주도하던 지도부는 노선다툼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군사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측은 수많은 島嶼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다시 의병이 재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심한 조치를 취하였다. 경비선의 운영과 해남-하동간 도로공사가 그것이다. 이는 전라남도를 「유수한 산업지」로 평가한 日帝의 저의가 드러난 조치라 할 수 있다. 결국 전남지방의 의병을 진압함으로써 일본측은 경제적 침탈의 가속화와 병탄의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1908-1909년에 全羅南道の 莞島 海南을 중심으로 활동한 島嶼地方의 義兵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하고 나아가 도서 지역에서의 民族運動이 1910년 併吞直後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간단하게나마 眺望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지방 의병은 〈莞島森林問題〉 및 漁業法 시행 등과 관련하여 190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완도삼림문제〉란 宋秉峻 등이 1908년 말 완도의 국유 삼림을 일본인에게 헐값에 넘기려는 사건을 말한다. 완도 주민들의 경우, 이 삼림에 거의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시도에 즉각 반발하였음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병 관련 유배수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對處하였다. 또한 1908년 11월에 시행된 어업법으로 말미암아 漁業權을 일본인들이 장악해 가자, 도서지역 주민들은 도처에서 생계의 수단을 빼앗겼다. 다시 말해서 일부의 경제적 침탈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섬 주민들은 반일감정을 표출하기에 이

른 것이다. 그 이전까지 도서지방은 의병과 관련하여 내륙의병의 일시적 근거지나 잠복 장소 그리고 流配囚들의 定配地로서 기능했을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둘째, 도서지방 주민들의 반일감정은 의병 관련 유배수들의 指導에 의해 의병봉기로 표면화되었다. 이들이 의병에 투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완도삼림문제>와 어업법의 시행과 같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서 찾아진다. 완도와 진도 등지에는 유배수중 內亂罪, 즉 의병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유배온 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동향과 당시 남부 연안지방으로 의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해남 부근에서 활동중인 沈南一 의병부대의 적극적인 반일투쟁을 계기삼아 정배지를 이탈하여 의병 대열에 합류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과 연계된 섬주민들을 의병에 가담시켜 도서지방에서 전개되는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에는 심남일의 起軍將인 李德三을 정점으로 활동하다가 마침내는 유배수들과 토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도적인 인물로는 流配囚 黃俊聖 秋琪燁 姜成宅, 해남 주민 黃斗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의병들은 완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과 해남 강진 등 沿岸地域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의 생업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셋째, 도서지방 의병들은 일본의 軍警과 在留日本人들을 逐出하는 활동, 간단히 말해서 반일투쟁을 中心目標로 삼았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도서지역에 침투한 일본어민과 상인 그리고 농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즉, 이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親日官吏나 親日派 그리고 徵稅 방해 투쟁을 전개하였다. 바로 그러한 부류들이 일본세력을 誘引하는 집단으로서 의병활동을 위촉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서지방은 「義兵의 巢穴」로 간주되었다.

네째, 도서의병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은 의병의 활동 정도에 따라 변화되었다. 1908년 말을 전후한 시기에는 제어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軍警의 증원이나 소규모의 토벌대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측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웠다. 하나는 褫負商을 이용하여 진압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이른바 「以夷制夷」로서 일본측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보부상들의 반대로 성사 직전에 취소되었다. 다른 하나는 대규모의 일본 군경을 동원하여 일시에 진압하려는 계획으로 이른바 「南韓暴徒大討伐作戰」이 그것이다. 게다가 도서지방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警備船을 동원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도서지방 의병들은 내륙으로 이동하여 진로를 모색하였으나, 오히려 지도부의 노선 다름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도서지방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들인 황준성 황두일 추기엽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반의병들은 피살되거나 혹은 자수, 피체되고 말았다.

다섯째, 일본측은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종료한 직후 주목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나는, 도서지방에 잠복한 의병을 색출하고 내륙과 도서를 효과적으로 경비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안 도서에 경비선을 집중 투입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병의 재발 방지와 내륙과 도서지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의병 재발시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海南-河東간에 도로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측은 내륙과 도서지방의 차단장치를 재빨리 마련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치로서 일본측에 의해 「유수한 산업지」로 평가되어온 전라남도 지방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1910년 併呑 얼마후인 1914년에 守義爲親契와 倍達青年會를 스스로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였다.<sup>72)</sup> 비록 크지않은 結社組織들이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72) 1910-1920년대 所安島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노선의 합류를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체들은 서울의 중앙조직들과 연계하면서 1920년 대에는 민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단체인 一心團과 살자會로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는 이 지역에서 新幹會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이로써 볼 때 1908년 말부터 1909년 중반까지 전개된 완도와 해남 중심의 도서지방 의병운동은 의병 관련 유배수들의 지도력과 도서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결집된 이 지방 민족운동의 제1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과 자료집이 참고된다.

- 이균영, 「해방의 땅 소안도(所安島)」, 『사회와 사상』 1989년 9월호.
- 정병호, 「합일운동의 성지, 소안도를 가다」, 『民族知性』 1989년 9월호.
- 『所安抗日運動史料集』(소안도, 1990). 이 자료집에는 당시 활동한 인물들의 재판 기록과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의 관계 기사 그리고 당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렀던 노래를 채록하여 실고 있다. 아울러 앞의 이균영 정병호의 글도 수록되어 있다.